

iM FX Brief

강력했던 한미일 외환시장 개입 공조

FX Brief

[경제] 박상현 2122-9196 shpark@imfnsec.com

주간 동향: 강력했던 한미일 외환시장 개입 공조

- 갑론을박은 있지만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안도감과 더불어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해 미-일 외환당국이 뜻 밖에 강력한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한 영향으로 엔화 가치가 급등했고 달러화는 전주대비 큰 폭의 약세를 기록함
- 유로화는 달러 약세 여파로 전주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.15달러 대로 반등함
- 달러-엔 환율은 외환시장 개입 여파로 큰 폭으로 하락함. 39년만에 최고치인 163엔을 돌파했던 달러-엔 환율은 미-일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공조 영향으로 157엔대로 급락함. 일본 정부가 30~31일 엔화를 대규모 매수한 가운데 미국 재무부 역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엔화 매수에 나섬. 또한 우에다 총재가 9월 추가 금리인상 시사한 것도 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함
- 위안화 역시 달러 약세와 반도체업체인 CXMT 상장 호재 영향 등으로 강세 흐름을 보임
- 호주달러도 달러화 약세 여파로 강세 반전함
- 주식시장이 극단적인 변동성 장세를 보이는 등 불안한 추세를 보였지만 달러-원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함. 달러 수급여건 개선과 더불어 한-미-일 외화정책 공조가 달러-원 환율 폭을 확대시킴

	7월 31일 종가	전주 대비 (%)	전년말 대비 (%)
달러화 지수	99.9	-1.53	1.62
유로-달러	1.153	1.38	-1.86
달러-엔	157.4	-3.92	0.44
역외 달러-위안	6.75	-0.29	-3.20
호주달러-달러	0.70	0.57	5.19
달러-원	1,435.5	-1.58	-0.63

금주: 엔화 추가 강세 여부 주목

- 이례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미-일 외환당국의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 효과가 지속될지 여부가 엔화는 물론 달러화 흐름을 결정할 것임. 일부에서는 일본의 막대한 정부 부채 등 구조적 문제로 시장 개입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주장하는 측도 있어 달러-엔 환율이 추가 하락할지 아니면 다시 160엔대로 재반등할지가 주목됨
- 달러-원 환율은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달러-엔 환율의 방향성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
- 금주 달러-원 환율 밴드는 1,400~1,450원으로 예상함

그림1. 미-일 외환시장 공조로 급락한 달러-엔 환율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2.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회의 도중 카메라에 잡힌 외환시장 개입을 시사하는 베센트 재무장관 메모



자료: 이데일리, iM증권 리서치본부

Compliance notice

-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 -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